

“올해 여름 휴가는 남원으로 떠나자”

시, ‘여름을 즐기는 여행지’ 소개… 청정 계곡·문화예술·야간 프로그램 등 특별한 추억 선사

남원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남원 관내 ‘여름을 즐기는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다.

남원은 지리산이 품은 시원한 계곡과 밤을 수놓는 문화예술 콘텐츠가 어우러지며, 남원은 낮과 밤이 모두 특별한 여름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어,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 발을 들이는 순간 공기의 질이 달라지는 이곳은 맑은 계곡 물과 울창한 숲이 만들어 내는 천연 피서지다. 뱀사골은 가족 단위 물놀이부터 여유로운 숲길 산책까지, 자연 속에서 온전히 쉬어갈 수 있는 여름 여행의 본질을 담고 있다.

또한 오는 7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청아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남원시립국악단의 창작 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국악 특유의 깊은 울림과 섬세한 연출이 더해져, 한 여름 밤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문화적 여운을 선사한다.

관한투원의 밤은 남원 야행의 백미로, 연못 위로 비치는 달빛과 고즈넉한 정자,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풍경은 ‘전북 야행명소 10선’에 걸맞은 분위기를 자아내어,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여행이 되는 공간으로, 남원의 밤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남원 여름, 야행 맛집에서 즐기세요’



남원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남원 관내 ‘여름을 즐기는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다.

를 테마로 한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과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는 별과 달을 바라보며 휴식을 즐기는 ‘별명달명’이, 금요일 오후 8시에는 ‘달빛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음악과 야경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름밤을 완성한다.

남원시에는 관한투원을 중심으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혼불문화관, 서도역, 달빛정원(피오리움)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코스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자연과 예술, 문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이 코스는 남원을 하루 더

머물고 싶은 도시’로 경험하게 한다. 특히 관광객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한투원 관광안내소(해설사의 집)에는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헛터와 관광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와 관광 택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야영장에 대해서도 시설과 소방·전기 설비를 점검하는 등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역사박물관, ‘한여름, 박물관 피서’ 운영

전주역사박물관은 지난 25일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한여름을 맞아 관람객을 위한 7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한여름, 박물관 피서’를 운영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행사는 무더운 여름철 온 가족이 시원한 박물관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1층 로비에서는 여름철 즐길거리를 소개하는 이젤 전시 △1층 교육체험실에서는 화려한 색감의 전통 민화를 부채에 담아 나만의 여름 소품을 만들어보는 민화 부채 만들기 △지하 1층 강당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애니메이션 상영회(‘토이스토리 3’, ‘겨울왕국’)가 각각 운영됐다.

/이만호 기자

장수군, 30일 특별기획 공연 ‘여름을 그리다’ 시즌2 개최

장수군은 장수의 아름다운 여름 풍경을 음악과 미술로 담아낸 특별기획 공연 ‘여름을 그리다’ 시즌2가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6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총 3회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무대로, 지역 예술인과 출향 예술가들이 함께 장수의 자연과 감성을 예술로 풀어낼 예정이다.

‘여름을 그리다’ 시즌2는 장수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장수 출신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낭만을 무대 위에 구현하는 프로젝

트로,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 클래식 연주와 보컬, 라이브 드로잉이 실시간으로 어우러지는 시청각 융복합 공연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클래식 앙상블 ‘로시오 델 솔(Rosio Del Sol)’의 풍성하고 섬세한 연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사계아트앤컬처 서진은 대표의 호소력 짙은 보컬과 계남면 출신 신에 바이올리니스트 김대현의 아름다운 선율, 계북면 출신 박민수·송애란 부부의 깊이 있는 하모니가 장수의 여름밤을 감동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또한 이효나 미술작가가 라이브 드로잉쇼를 선보인다.

/장수=고관호 기자

원주문화관광재단, 찾아가는 문화배달 이서면민 위한 ‘야, 춘기야’ 연극 공연

(재)원주문화관광재단은 ‘2026 찾아가는 문화배달’ 공모 사업에 선정된 한국 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이서면민의 문화 향유 활성화를 위한 연극 공연 ‘야, 춘기야’를 오는 29일 오후 7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새울림홀에서 선보인다.

찾아가는 문화배달사업은 원주 지역의 문화 시설 등 소외지역과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 공연, 체험, 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연극 공연 ‘야, 춘기야’는 교과서에 수록된 청소년 심리를 다룬 단편소설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감각과 연극적 상상력을 더해 새롭게 각색한 작품이다. 사춘기를 겪는 딸과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엄마의 갈등과 화해를 중심으로, 가족 안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소통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한다.

/원주=염재복 기자

‘웅장한 합창 진모’ 시민에 선사

군산시립합창단, 조은혜 신임 예술감독 겸 지휘자 취임연주회 ‘호응’

군산시립합창단이 개최한 ‘신임 상임지휘자 취임 기념 연주회 ‘카르미나 부라나’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환호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군산시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약 1년동안 상임지휘자 공백기를 지나 다양한 객원지휘와 오디션을 거쳐 위촉된 군산시립합창단 조은혜 신임 예술감독 겸 지휘자 취임 연주회가 객석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열기 속에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10대 군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취임한 조은혜 상임지휘자는 목원대학교 음악대학을 전제수석으로 졸업한 후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한스 아이슬러에서 합창지휘 디플롬과 오케스트라 지휘 학사를,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합창지휘 최고연주자과정을 모두 최우수 성적으로 마친 재원으로 2016년 국립합창단 주최 제5회 합창지휘 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음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베를린 방송합창단, NDR북독일 방송합창단, 베를린 필하모니 합창단 등 유럽 최정상급합창단과의 마스터클래스 및 연주를 통해 음악적 시야를 넓혔고, 국내에서는 국립합창단과 울산시립합창단의 상임부지휘자, 보령시립합창단과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의 지휘자, 대전시립합창단 전임지휘자를 역임하며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선보였다.



이번 무대는 신임 상임지휘자의 취임을 알리는 첫 공식 무대로서 특별히 연주곡 ‘카르미나 부라나’를 군산시립예술단이 최초로 전곡을 다 연주하는 무대로 기획되었다.

칼오프의 ‘카르미나 부라나’는 인간의 운명과 희로애락을 노래하는 거대한 서사시로, 20세기 서양음악사에서 가장 대중적 이면서 극적인 대작으로 꼽히는 대곡이다. 이번 연주회에서 조은혜 지휘자의 정교한 바톤 테크닉 및 통찰력 있는 해석과 시립예술단원들의 섬세하면서도 폭발적인 연주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다.

특히, 군산 시립합창단(40명), 당진시 충남합창단(30명), 금빛나래 어린이합창단(40명)까지 총 110명의 합창단과 군산시립교향악단(67명)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대규모의 웅장한 연주회의 진모를 보여주었다. 연주가 끝난 후 관객석에서는 끊임없는 기립박수와 환호가 이어졌고, 군산시립예술단은 한층 강화된 예술적 역량과 새로운 도약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군산=김만호 기자

제49회 전북자치도 공예품대전 시상식 열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의 우수 공예품을 발굴하고 공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49회 전북특별자치도 공예품대전’ 시상식을 지난 24일 원주 복합문화지구 누에아트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예품대전은 전통 공예기술과 현대적 디자인, 상품성을 갖춘 우수 공예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도내 대표 공예 공모전으로, 지역 공예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공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등 6개 분야에서 총 83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공예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상품성(40%), 디자인(30%), 창조성(20%), 품질수준(10%)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을 비롯한 총 50점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여예의 대상은 도자공예 분야 출품작이 차지했으며,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4점, 장려상 12점, 특선 7점, 입선 23점 등 총 50명의 공예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수상자에게



제49회 전북특별자치도 공예품대전 대상 작품

는 상장과 함께 30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수상자들에게 창작활동을 위한 장려금도 함께 수여됐다.

특히 특선 이상 수상작은 ‘제56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입선 이상 수상자가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공예 제조사업자는 ‘공예품 개발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받아 상품 개발과 사업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